

여자배구, 150번째 한일전서 3-2 승... 3연패 뒤 첫 승 4년 만에 일본에 승리... 역대 한일전 상대 전적은 56승 94패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경남 진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펼쳐진 역대 150번째 한일전에서 웃었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6일 진주체육관에서 열린 2025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진주 국제여자배구대회 4차전에서 일본에 세트 스코어 3-2(25-18 19-25 20-25 25-21 15-12)로 승리했다.

앞서 아르헨티나(1-3 패), 프랑스(2-3 패), 스웨덴(1-3 패)에 모두 저 3연패에 빠졌던 한국은 일본을 제물로 4경기 만에 대회 첫 승리를 신고했다.

또 일본에 최근 4연패로 열세였던 한국은 2021년 7월31일 2020 도쿄올림픽 예선 4차전(3-2 승) 이후 약 4년 만에 한일전에서 승리했다.

역대 한일전 상대 전적은 56승 94패가 됐다.

다만 이번 대회에 나선 일본은 주축 선수가 일부 빠진 1.5군으로 평가된다.

세계랭킹 39위 한국에 진 5위 일본은 대회에서 2승 2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포짓 스파이커 문지윤(흥국생명)이 18점, 강소휘(한국도로공사)가 14점으로 32점을 합작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또 이주아가 12점, 이다현이 11점 등 두 자릿수 득점으로 제 몫을 해냈다.

일본은 후타야마 아이가 22점, 오사나미 미와코가 21점으로 분전했다.

한국은 첫 세트를 25-18로 따냈지만, 2세트를 19-25로 내준 뒤 3세트마저 20-25로 저 역전당했다.

4세트를 25-21로 다시 가져와 균형을 맞춘 한국은 마지막 5세트에서 뒤집기에 성공했다.



5세트 중반까지 앞치락뒤치락하던 한국은 9-10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이다현(흥국생명), 강소휘, 박은서(페퍼커피축은행)가 연속 3점을 올리며 12-10으로 역전했다. 이어 14-12 매치 포인트에서 이다현

이 속공으로 세트 점수 3-2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본을 상대로 대회 첫 승을 올린 한국은 17일 낮 12시 체코와 최종 5차전을 치른다. 한편 이날 진주체육관에 5325석의 관

중석이 가득 들어찼다. 앞서 열린 경기에선 프랑스가 스웨덴을 3-0(25-18 25-21 25-18)으로 완파했다. 프랑스와 스웨덴 모두 2승 2패를 기록했다. /뉴시스

지금은 마라톤 시대... 남녀노소 함께 달린다

공원, 강변, 도심 도로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러닝화를 신고 뛰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다. 성별, 세대,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달리기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달리기 장마나 장소의 제약이 적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해져 러닝 붐이 일고 있다. 스포츠 업계에서는 국내 러닝 인구를 약 1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러닝, 즉 달리의 정점에 있는 종목이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42.195km를 가장 먼저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면 된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중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마라톤 평원에서 격파했고,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알린 뒤 숨졌다는 전설에서 마라톤이 시작됐다고 한다.

한국 마라톤 역사는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극기를 가슴에 달지 못하고 시상대에 선 손기정의 고개 숙인 모습은 해방 전후 세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서윤복, 함기용, 이봉주, 황영조 등 한국의 마라톤 스타 선수들이 등장했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황영조), 1996년 애틀랜타 은메달(이봉주)로 한국 마라톤이 세계에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한때 엘리트 마라톤이 장거리 스포츠의 간판이었다면, 지금은 생활체육으로서의 마라톤이 더 친숙한 시대다. 42.195km라는 먼 거리는 아마추어 러너들에게 부담이 됐고,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절반인 하프 코스부터 10km, 5km 등 단축 코스까지 다양한 거리가 마련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록 경쟁보다 완주 자체와 즐기는 분위기를 중시하는 '펀런(Fun Run)'부터 코스 중간에 음악 공연이나 지역 특산물 시식 코너를 두는 등 형태로 다양한 대회가 등장했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가 수백 개에 달하며, 참가자들의 연령층도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다양하다. 러닝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은 만큼, 달리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워치나 러닝 앱으로 기록을 재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스 및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달릴 사람을 모집하는 풍경은 일상이 됐다.

러닝크루 회원인 이도범 씨(34)는 "일 끝나면 공장 집이라는 단조로운 삶을 살다가 달리를 하면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매일 습관처럼 뛰게 됐다"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 홀로 또는 여럿이서 뛸 수 자유롭게 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사내 러닝 동호회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마라톤 대회를 관광 사업과 결합해 개최한다.

달리는 체력 단련을 넘어 자기 관리,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가 늘면서 '마라톤은 고통'이라는 인식도 바뀌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5km를 걷고 달리거나 3대가 함께 출발선에 서는 장면은 더는 낯설지 않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면서 완주하는 러너도 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패적인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미티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종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세종 GS건설
세종 (주)한화/건설
HDC엔지니어링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의 손흥민.

LAFC 손흥민, 썸기골 도우며 첫 어시스트... 선제골 장면도 관여

로스앤젤레스FC(LAFC) 손흥민(33)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에서 첫 도움을 기록하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17일(한국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49분 마티유 조니에르의 썸기골을 도우며 2-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LAFC는 승점 40(11승 7무 6패)으로 MLS 서부 콘퍼런스 5위에 자리했다.

스티브 체룬들로 LAFC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해 경기를 시작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왼쪽에 드니 부앙가, 오른쪽에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함께 공격진을 구성했다.

손흥민은 선제골과 썸기골에 모두

뉴잉글랜드 원정서 후반 49분 어시스트 기록 후반 6분 선제골에도 일조했으나 '도움 취소'

일조하며 LAFC에 승리를 선사했다. 후반 6분 높은 위치에서 압박한 LAFC가 볼을 빼앗는 데 성공했다.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손흥민이 매트 폴스터와 부딪혔고, 마르코 델가도가 흘러나온 볼을 슈팅해 골망을 갈랐다.

당초 MLS는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해당 득점을 어시스트했다고 전했으나, 볼이 손흥민이 아닌 폴스터의 발에 맞고 흐른 것으로 보고 도움 기록을 뒤늦게 취소했다.

손흥민은 교체 없이 풀타임을 뛰었고, 승리에 썸기를 박는 득점을 도왔다. 후반 49분 LAFC가 빠른 속도로 역습을 펼쳤다. 중앙에 있던 손흥민이 측면으로 볼을 넘겼고, 빈 공간에서 기회를 잡은 조니에르가 낮게 깔린 슈팅을

로 썸기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첫 풀타임 경기에서 데뷔 도움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었고, 경기 종료 후 최우수선수(POTM)로 선정됐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뎀'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볼터치 50회, 슈팅 4회, 유효 슈팅 2회, 기회 창출 5회, 패스 성공률 88%(33회 중 29회 성공), 드리블 성공률 100%(4회 중 4회 성공) 등을 기록했다.

'풋뎀'은 손흥민에게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8.5를 부여하기도 했다. 적응이 없어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은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 FC델러스를 상대로 데뷔골을 노린다. /뉴시스